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 13만여평 섬전체가 식물원 '꽃섬'

제1부/제주식물 세계화 100년(32)

유럽의 식물원을 가다(하)-독일 보덴湖 마이нау식물원

입력 : 2004. 12.14. 00:00:00



19세기 중엽 열대식물원 조성 시작

1백년 이상 고목 즐비...주제별 화원

매년 국내외 관광객 2백여만명 찾아

독일 남부 스위스 접경에 있는 마이нау(Mainau)식물원은 중부유럽의 최대 식물원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보덴호수'(일명 콘스탄츠 호수)의 떠 있는 섬에 식물원이 조성돼 섬 전체가 거대한 식물원이다. 수천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어우러져 '꽃섬'으로도 불린다.

보덴호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3개국에 접해있는 유럽에서는 3번째로 큰 호수이다. 호수의 연안선의 총 길이는 2백62km로 그 가운데 독일지역이 1백68km, 스위스가 69km, 오스트리아가 25km로 나뉘어져 있다. 보덴호의 수질은 아주 깨끗해 이 곳 사람들의 물관리 수준을 짐작케 한다.

한라일보 취재진이 이곳을 찾아간 것은 지난 9월말이다. 이 식물원은 주말과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행렬로 장사진을 이루는데 매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2백만명이 넘는다.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중부 유럽권 관광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간간히 아시아권 관광객들도 눈에 띈다. 식물원 관계자들과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일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고 한다. 취재진이 찾았을 때는 한국인 패키지 관광객도 만날 수 있었다.

마이нау섬 45ha 전체를 식물원으로 가꾸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무렵이다. 이 섬은 중엽부터 오랫동안 독일 기사단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19C중엽에 바텐 공작 프리드리히 1세가 이 섬을 구입하여 오렌지, 레몬, 바나나 등을 심어서 열대식물의 섬으로 만들었다.

식물원의 역사를 보여주듯 너도밤나무, 나구송, 포플러, 오동나무, 향나무 등 1백년 이상된 고목들이 식물원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다.

유럽 유수의 식물원이 종 채집과 보전 및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마이나우식물원은 관광적인 요소를 한껏 가미한 느낌을 준다. 식물자원의 활용 범위가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는가를 마이나우식물원이 보여주고 있다. 레몬 전시장, 장미원 등 주제별 정원이 쉴새없이 펼쳐지고 관광객들은 황홀경에 빠져든다.

마이나우 식물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매우 이색적인 공간에서 발길을 멈추는데 바로 '나비의 집'(Butterfly House)이다. 1천㎡ 규모의 실내 온실하우스와 그 주변에는 나비를 응용한 온갖 조형물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곳 나비하우스는 독일내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식물원측은 방문객들을 위해 연중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테마공간으로 나비하우스를 착안,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온실로 들어서면 1천여종에 이르는形形色색의 나비들이 꽃들과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한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쉴새없이 날아다니는 나비를 배경으로 사진촬영하고 레몬 즙을 빨아먹는 나비의 모습에 넋을 잃을 정도다.

식물원측은 볼거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다. 나비를 캐릭터화한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을 브랜드로 만들어 고가에 판매하는데 빈 손으로 이곳을 나서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매장은 하루종일 붐빈다. 기념품 판매장에서는 즉석 미니콘서트까지 열린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